

순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든다

LOCAL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18개 기업-다동이 가정 결연...연 120만원 양육비 전남 최초 연령별 보육료 50% 지원 정책 등 시행

순천시 지역 기업과 손잡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섰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과 다동이 가정의 함께하는 '다동이 꿈 키움사업' 결연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으로, 지역 기업이 다자녀 가정과 일대일 결연을 하고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8년 시작돼 올해로 8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5개 기업과 168가정이 참여해 약 2억8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18개 지역 기업이 참여해 전년도 넷째 이상 출산한 19가정에 매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저출생 문제 극복

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5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이상 출산 산모 등 감면대상에 이용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난임시술비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으로 출산당 25회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1회당 3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45세 이상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인하했다.

산후조리비용을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100만원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이용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 확대해 출산자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올해 1월부터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노관규 순천시장이 다동이 가정에 결연증서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생수당을 지급하며, 외국인 아동 보육료도 순천시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어린이집 이용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남 최초 연령별 보육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장기간 감소 추세에 있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 소폭 반등한 것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주신 부모님들과 후원 기업들의 큰 역할 덕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앞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담양, 1인 가구 사회안전망 강화 (주)hy 첨단점과 안부확인사업

담양군은 (주)hy 첨단점과 고립·은둔 1인 가구 사회적 단절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청·중장년 은(隱)유(乳) 안부확인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배달원을 통해 담양군과 해당 읍면사무소에 위기상황을 전달하는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hy 첨단점은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30가구에 주 1~2회 건강 음료를 전달하고 음료 미수거 등 의심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관련 읍면사무소에 상황을 전달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강화해 소외되는 이웃 없이 누구나 행복한 담양군이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중 기자 jwnews@gwangnam.co.kr

고흥 여자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성큼'

신청서 완성도 검사 통과...내년 7월 최종 결정

고흥군은 국가유산청을 통해 유네스코에 제출한 고흥 여자만 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신청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 결과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완성도 검사는 신청서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세계유산 등재 심사가 진행되며, 만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등재 신청서는 반려된다.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신청서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전남 고흥·여

수·무안갯벌과 충남 서산 갯벌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기존 1단계 등재 때 포함된 서천·고창·보성-순천 갯벌은 물새의 이동 범위와 서식공간을 충분히 포괄하도록 완충구역을 확대시켰다.

이번에 완성도 검사를 통과한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신청서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40항에 따라, 이번 달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종합토론 심사를 거쳐 된다. 이후 2026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장성군은 최근 (주)코람코자산신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성, 지역발전·기업 투자유치 시동 (주)코람코자산신탁과 업무협약 체결

장성군이 지역발전과 기업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군은 (주)코람코자산신탁과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한중 군수는 "광주시에 가깝고 호남 고속도로, KTX 등 사통팔달 교통 여건을 갖춘 장성군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도시"라며 "이번 협약이 장성의 미래 경제지도를 바꾸는 뜻깊은 동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희 대표이사는 "코람코가 보유한 개발 노하우와 투자자 네트워크를 공유해 장성군과 동반 성장, 동반 혁신을 이뤄 가겠다"고 밝혔다.

장성=이형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여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3년 연속 선정

여수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서 'K-드론 배송 서비스' 분야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9000만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오는 11월까지 맞춤형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고도화를 목표

로 섬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배송 물품 중량을 기존 5kg 이하에서 10kg 이하로 늘리고, 도서 지역 순찰 비행, 보건·의료 행정서비스 지원, 복지 후원품 무료 배송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년간 국·도비 13억 2000만원을 확보해 드론센터를 조성하고 비행로 개설, 배송 앱 개발 등 서비스 기반을 구축했다.

진도, 작금, 개도 권역 3개소에 배송거점, 섬마을과 돌산 소재 호텔·리조트 등 15개소에 배달점을 설치했으며, 섬 지역 물류 배송과 섬 특산물 역 배송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화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 꿈 찾는 진로 체험! 키즈라라에서 30여가지 직업 체험을 만나보세요!

30여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

꼬마허어로 슈퍼액과 함께할 수 있는 **영유아 체험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라라 잔디광장**

키즈라라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 즐거운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항공훈련센터·뷰티살롱 등
- 미디어로 소통하는 TV 방송국·1인 방송국 등
-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공룡연구소·AI 로봇연구소 등
-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쿠키·치즈공방·식품연구소 등
-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경찰서 등

어린이 테마파크 키즈라라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온천1길 35 T. 1600-7953